

# 웹드라마 속 그 작품, 전시회에서 감상해요

웹드라마 '스텐바이 큐레이터' 주인공인 독립큐레이터 정그림은 기획전을 준비중이다. 미디어 아티스트 도경하와 화가 작가 이다비 등을 초대해 '청년작가전 기획전-OFFSHORE'를 열 생각이다. 작가들 선정하고 컨셉을 잡고 전시를 준비하는 동안 큐레이터와 작가들 사이에서는 많은 일들이 일어난다.

웹드라마 소재로 쓰인 전시회를 직접 만날 수 있는 흥미로운 기획전이 열린다.

광주에서 활동하는 바닐라씨가 제작한 '스텐바이 큐레이터' 속 전시회를 구현한 기획전 'OFFSHORE'전이 11월1일부터 10일까지 국립아시아문화전당 민주평화교류원 지하 1층 펍스튜디오에서 열린다.

바닐라씨는 지난 2017년부터 '연애인턴 최우성', '요코코롭남남' 등 4편의 웹드라마를 만들었으며 해외 취입 이야기를 다룬 '어바웃 유스'는 베트남과 공동제작했고, 내년에는 싱가포르 제작사의 제안을 받아 '어바웃 유스' 싱가포르판을 제작할 예정이다.

10~18분 분량 10부작으로 구성된 '스텐바이 큐레이터'는 젊은 큐레이터와 청년작가들이 함께 전시를 만들어가는 스토리로 지역 문화계의 이야기이자, 우리시대 청년들의 고민을 담고 있는 이야기이기도 하다. 첫편은 30일 오후 6시 바닐라씨 유튜브 채널과 네이버 TV

웹드라마 '스텐바이 큐레이터' 연계한 기획전 'OFFSHORE'

11월1~10일 ACC...고마음·박시영·박태인·최지선 등 전시광주서 10부작 촬영 유튜브 공개...배우들 1일 도슨트 참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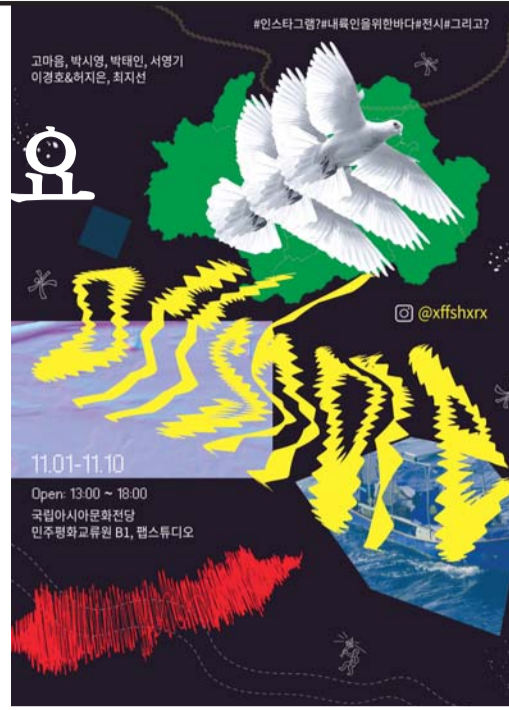
채널에서 공개됐으며 이후 수·금요일 같은 시간에 만날 수 있다.

이번 드라마는 호랑가시나무 아트폴리곤, 한희원 미술관을 비롯한 양림동 일대와 동명동, 국립아시아문화전당 등 광주의 문화를 느낄 수 있는 장소에서 모두 촬영했다. 출연배우들은 웹드라마계 스타들이다. '연애 플레이리스트'에 출연한 박시영이 큐레이터 역할을 맡았으며 JTBC 드라마 '일단 뜨겁게 청소하라'에 출연한 학진, '사랑방 손님'의 손현우 등이 함께한다. 배우들은 전시 기간 중인 11월 2일 하루동안 도슨트로 참여해 관람객들에게 작품을 설명할 예정이다.

드라마와 전시가 어우러진 독특한 기획은 바닐라씨 이나건 PD에게서 나왔다. 전남대 문화전문대학원에서 문화기획을 공부했던 이 PD는 지역에서 활동하는 기획자, 아티스트들의 이야기를 녹여내고 싶었다.

"대학에서 문화를 공부하고 또 영상 작업들을 하면서 지역 문화계에서 보고 나누고 느꼈던 이야기들을 드라마로 제작해 보고 싶었어요. 기획을 진행하던 중 단순히 드라마 소재로만 쓰지 말고 직접 전시를 꾸며보면 좋겠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청년작가들은 단순히 몇사람 모아놓고 진행하는 그룹전이 아닌, 제대로 된 '기획전'을 꼭 말라하고 있었거든요."

전시 관련 부분은 문화 공간 '바람'의 강민형 큐레이터가 전담했다. 강 씨는 광주의 청년작가들이 고마움(회화·설치), 박시영(시각·공간 디



최태지 예술감독과 함께하는 클래식 발레 토크쇼·갈라쇼



시립발레단, 11월1~2일 문예회관

광주시립발레단이 11월 1일 오후 7시 30분, 2일 오후 3시 광주문화예술회관 소극장에서 '최태지 예술감독과 함께하는 클래식 명작 발레'를 개최한다. 이날은 유명 발레 작품들의 하이라이트 장면을 무대에 올리며 최 감독이 출연해 클래식 발레의 개요와 감상 포인트 등을 짚는 토크쇼를 진행할 예정이다.

이날은 '나폴리' 중 결혼식 장면의 경쾌한 리듬과 테크닉을 선보이는 '파 데 식스'로 막을 올린다. 이어 '돌키호테' 중 32번에 이르는 회전 동작으로 잘 알려진 '그랑 파 드 뒤', 남성 무용수의 역동적인 회전과 점프로 프랑스 혁명 영웅의 모습을 그린 '파리의 불꽃' 중 '파 드 뒤'를 선보인다.

또 유리 그리고로비치 버전의 '백조의 호수' 중 남녀의 첫 만남을 우아한 몸짓으로 표현한 '백조 아다지오'도 만나볼 수 있으며, 아쟁과 피아노, 첼로의 선율로 남녀 사이의 사랑을 그린 창작발레 '하늘빛 그리움 아다지오'도 무대에 올린다. 전석 1만원. /유연재 기자 yjyou@kwangju.co.kr

한국 피아노학회 정기연주회

11월2일 금호아트홀

한국 피아노학회 정기연주회가 오는 11월 2일 오후 3시 유스퀘어문화관 금호아트홀에서 개최된다. 이번 음악회는 전문 반주자·교육자 등으로 활동 중인 각 지역 한국피아노학회 회원들이 한 데 모여 펼치는 무대다. 바흐부터 현대까지 이어지는 다양한 곡들을 2대의 피아노를 이용해 2~4명의 연주로 선보일 예정이다.

이날은 바흐의 '이탈리아 협주곡'을 연주하며 문을 열고, 보렐디외의 오페라 '바그다드의 통치자' 중 '서곡', 바버의 '추억', 구아스타비노의 '세 개의 아르헨티나 로망스', 차이코프스키의 '잠자는 숲속의 미녀' 중 '왈츠' 등을 무대에 올린다. 리스트의 '헝가리 광시곡', 샤브리에의 '스페인 광시곡', 브람스의 '헝가리 무곡', 스페타나의 '소나타' 등도 만나볼 수 있다.

공연에는 김정아·김순담·박선혜·이주영·서운진·임세복·송주은 등 35명의 피아니스트가 출연한다. 전석 초대. /유연재 기자 yjyou@kwangju.co.kr



바닐라씨가 제작한 웹드라마 '스텐바이 큐레이터' 촬영 현장.

(바닐라씨 제공)

## '1930 양림살롱' "올해 마지막 무대, 모두 함께 즐겨요"

'여행시즌' 주제로 대표 프로그램 진행... 11월2일 양림동 일대

올해 마지막 '1930양림살롱'이 11월 2일 오후 2시 양림동 일대에서 개최된다. 지역문화진흥원과 (주)유스퀘어가 주관하고 '문화가 있는 날' 행사로 개최되는 '1930양림살롱'은 광주의 근대(1930년대)를 소재로 음악, 연극, 전시, 마켓, 체험 등 다양한 프로그램을 양림동 전역에서 즐길 수 있는 축제다.

이번 축제의 주제는 '여행시즌'으로, 지난 1년 동안 선보였던 대표 프로그램과 아티스트들을 만나볼 수 있다. 이번 양림살롱에서는 지난해 전국오월창작가요제 대상을 수상한 정말야와 함께 싱어송라이터 범진, 우물안개구리, 임예송, 바다프로젝트, 윈디캣 등 다양한 아티스트들이 카페 릴, 가뽀빌리, (구)은성유치원 등 곳곳에서 무대를 갖는다.

대학생을 위한 뉴트로페스타 '상상텔루나 in 양림'도 (구)은성유치원에서 열려 눈길을 끈다. 이 프로그램에서는 양림동의 역사문화를 돌아보는 스탬프투어, 라탄공예와 화훼공예 등을 즐길 수 있는 체험 부

스, 양림살롱 아티스트들이 참여하는 특별공연 등을 만날 수 있다.

시간여행자 콘셉트의 투어 가이드와 함께 양림동의 역사와 예술을 만나는 야간투어프로그램 '양림달빛투어'도 올해 마지막 무료 이벤트로 시민을 만난다. 예술체험 프로그램 '예술가(家)의 시간'은 광주공예명장의 아틀리에에서 나전칠기 팬던트를 만드는 전통공예 체험을 비롯해 정크아트(갤러리고철), 캔버스 회화 체험(한희원미술관), 흥차 드로잉(매종드레), 단청 그리기(이강하미술관) 등 체험을 마련했다.

이 밖에도 카페에서 차와 함께 음악공연을 즐길 수 있는 '살롱콘서트', 연극 공연 '1930모던걸다이어리', '양림행지순례', '미스터노바디살롱' 등 프로그램을 만나볼 수 있다. 행사 당일 텀블러를 구매하면 제휴 카페의 커피와 음료를 무료로 즐길 수 있는 이벤트도 함께 진행된다. /유연재 기자 yjyou@kwangju.co.kr

## SALON DE YANGNIM



1930양림살롱

SINCE 1982 **“인터넷 검색창에 국제보청기를 보세요”**

각국 보청기 전문 A/S센터 상표등록 제2549335호

**국제보청기**

- 필요한 소리만 똑똑히 들립니다.
- 작은 사이즈로 착용시 거부감이 없습니다.
- 정직한 우수상품 가격부담이 없습니다.

본점 서석동 남동성당 옆 062) 227-9940  
062) 227-9970

서울점 종로 5가역 1층 02) 765-9940

순천점 중앙시장 앞 061) 752-9940

**특별 월 회원 모집**

# 신양파크호텔 휘트니스 클럽

개인 (월) ₩ 300,000

- 사우나, 체력단련장, 수영장 무료이용
- 레스토랑 이용시 ..... 10% 할인
- 객실 이용시 ..... 50% 할인
- 요가, 에어로빅, 수영 단체레슨 무료

상담문의 062-228-4711, 2/221-4101, 3